

구호만 '으뜸효 남구' 고령친화도시 선정은 무관심

WHO 인증 위해 2021년 조례 제정 불구 계획 수립 전무 광주시, 동·서·북구는 지정...남구 "하반기 용역 추진"

광주 남구가 '으뜸효 남구'를 슬로건으로 효사랑 도시를 구축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국제 기구의 '고령친화도시' 인증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해 '말뼌'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3일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구정장은 지난해 민선 8기 비전으로 '활기찬 경제와 행복한 복지, 으뜸효 남구'를 선정했다. 구정장이 신년사를 통해 직접 강조한

'으뜸효 남구'의 골자는 튼튼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통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남구는 효(孝) 문화를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천세 축하금'을 도입하며 여가 프로그램과 건강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복지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문제는 남구가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서도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과 생활 여권이 갖춰진 곳을 고령친화도시로 지난 200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다.

인증 받기 위해선 WHO가 제시한 ▲외부 공간과 건물 ▲주택 ▲교통 ▲사회 참여 ▲준중과 사회적 통합 ▲시민 참여와 고용 ▲의사소통과 정보 ▲지역사회 지원과 건강 등 8개 영역에서

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남구도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지난 2021년 7월 '광주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3년이 돼가는 현재까지 추진 계획 수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례에는 남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동구는 광주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2017년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2019년 재인증에 성공한 데 이어 다음 해 받을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2019년 첫 인증을 받은 서구도 2022년 재인증 받았으며, 북구도 올해 1월 첫 인증을 받았다. 광역 단체인 광주시도 2020년 첫 인증 후 지난해 재인증에 성공했다.

광산구의 경우 WHO 인증을 받지 못했으나 지난해 건국대학교 건강고령사회연구원 등이 주최,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제1회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공모전에 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에 '으뜸효 남구'를 표방하고 있는 남구가 공식적으로 받은 '성적표'가 타 자치구에 비해 초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봉선동에 거주하는 박모(50대)씨는 "고령자들이 살기 좋은 구로 조성하겠다고 해서 내심 기대했는데, 말뼌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효도수당, 장수축하금,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 등 다양한 고령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고령친화도시 국제 인증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한 후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흡한 점 없이 준비해 WHO 인증을 받고 '으뜸효 남구'라는 슬로건에 맞는 도시 정책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침수 취약지 실시간 모니터링. 여름철 많은 양의 장맛비가 예보된 가운데 3일 광주 북구청 하천방재과 직원들이 관내 지하차도와 하천 등의 침수 취약지를 대상으로 '스마트 침수대응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교사 노트북 해킹' 시험지·답안 유출 10대 실형

항소심, 단기 1년·장기 1년6개월→징역 1년 선고

고등학교 교사의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어 유출한 시험지와 답안으로 시험을 치르다 적발된 1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단기 1년·장기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원심 파기 사유는 1심 선고 당시 A군이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던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성년이 돼 양형을 새로

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A군은 친구 B(19)군과 지난 2022년 3~7월 자신이 재학 중이던 광주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10여차례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과목별 시험지와 답안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화면을 자동으로 갈무리(캡처)하는 악성코드를 교사의 노트북에 심은 뒤 다시 교무실에 침입해 시험지 및 답안이 적힌 파일을 USB로 옮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철보 영화를 연상케 한 10대들의 범행은 시험을 치른 뒤 답안이 적힌 쪽지

를 찢어 버리는 것을 수상히 여긴 동급생들에 의해 적발됐고, 해당 학교 측은 A·B군을 퇴학 처분했다. 공범 B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았다.

A군의 양형 부당 주장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그는 선처를 거듭 호소했으나,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정한 성적 관리 업무가 방해됐고 성실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안겼다"며 "노트북 사용기록을 삭제하거나, 답안을 적은 쪽지를 숨기려 하는 등 범행 이후 사정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의장 후보 논란' 광주 남구의회 남호현 의원 '의장' 추대

부의장 박용화 의원...오늘 임시회서 선출·상임위원장도

'의장 후보 논란'으로 잡음이 일었던 광주 남구의회 하반기 의장 후보로 남호현 현 부의장이, 부의장에는 박용화 의원이 단독 추대됐다.

3일 광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하반기 의장과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 11명의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남호현 부의장과 박용화 의원을 각각 하반기 의장과 부의장으로 추대하는 데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합의 추대됐다.

남구의회는 4일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에서 하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3명을 선출해 원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구의회는 당초 지난달 29일 하반기 의장 선거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거쳐 4일 예정된 임시회에서 의장 등을 선출하려 했으나, 지난달 26일 '의회 사무국 여직원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A 의원이 의장 선거 경

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적정성 논란이 빚어졌다.

이에 민주당 중앙당 소속 윤리감찰단이 남구의회를 찾아 A 의원과 황경아 남구의회 의장 및 사무국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벌였고, 이후 A 의원이 의장 경선 후보에서 사퇴했다.

황경아 남구의회 의장은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의원총회를 통해 의장·부의장 후보를 결정했다"며 "4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하반기 남구의회 의장단을 구성하고 남은 기간 주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市교육청 "학생 흥기난동 중학교 감사"

교사들 제기한 사항 사실관계 확인도

광주지역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흥기난동을 부려 교권 보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광주교육청이 해당 학교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다.

김선성 광주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장은 3일 "교사들이 제기한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감사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광주 북구 한 중학교에서 3학년 A 학생이 수업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교사를 대상으

로 흥기 위협을 하다 다른 교사 3명과 학생들에게 제압당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교육청은 A군을 특수학생으로 지정해 특수학교나 학급으로 전학을 검토 중이다.

해당 중학교 교사 25명은 전날 "이번 사건에서 학교장이 어떠한 책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흥기 난동이 발생했지만 피해 교사는 관리자인 교장으로 부터 어떠한 보호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교장·교감을 교체해달라는 서명 운동에 나섰다.

직장 동료 살해 후 도주 40대 검거

목포에서 직장 동료를 살해한 뒤 달아난 40대가 여수에서 긴급체포됐다.

3일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A(4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남 목포시 동명동 한 주택가 2층에서 직장 동료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의 관리 하에 있던 B씨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에 의해 이날 오전 2시3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경찰은 이날 오후 2시8분께 여수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60 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실내스크린파크골프장

18홀~36홀/전국유명파크골프장 실전

- 파크골프장 실전라운딩(1~4인)
- 입문반(1:1지도)

1. 파크골프기초교실·라운딩연습교실	매일/9시~
2. 파크골프지도자1,2급자격증 취득반	수시접수

- 무더위쉼터 실내파크골프장 운영 / 오전9시~저녁10시
- 파크골프용품·용구 전시장 완비!

화정새마을금고4층 | 010-9163-789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